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재택 근무)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격리 중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 61,1-2 7.10-11

[화답송] ..... 루카 1,46-48.49-50.53-54(◎ 이사 61,10 참조)



(후렴) 내 영혼이 내 하느님 안에서 기뻐하 - 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그분이 비천한 당신 종을 굶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12월 교황님 기도 지향]**

(복음화 지향 : 기도 생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맺는 인격적 관계가 하느님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더 굳건해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2독서] ..... 1테살 5,16-2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음] ..... 요한 1,6-8.19-28

**[성가안내]**

- 입당성가 [92] 구세주 내 주 천주여
- 봉헌성가 [93] 임하소서 임마누엘
- 파견성가 [95] 별들을 지어 내신 주

**미사 봉헌**

● 연기사

- 김화차 소화테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 김영우 요셉, 강건대 마리아 부부
- 김영복 아네스
- 황창현
- 최정인 안나
- 황경희 루치아
- 정 선
- 정안빈 로베르도 신부

봉헌

- 김영숙 카타리나
- 김지영 유스티나
- 김애희, 이경자
- 황경숙 수산나
- 황경숙 수산나
- 황경숙 수산나
- 김윤아 마리아
- 최병남 미카엘라

● 생기사

- 이서원 마리로사
- 박기목 알버트
- 방상욱 베드로
- 하비에르 윤, 로마노 윤
- 이미진 조앤그레이스
- 박수정 크리스티나, 박수진 줄리아

- 김보현 엘리사벳
- 최병남 미카엘라
- 민재인 데레사
- 윤 루시아
- 이지훈 아네스
- 양미숙 마리아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성가대)	
12월 13일	이은경 헬렌	박기웅 사도요한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혜윤 크리스티나	양미숙 마리아	독서자는 미사 전, 제의방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제와 함께 행렬합니다.
12월 20일	박기목 알버트	강호영 대건안드레아	고은경 모니카	고은경 모니카	안선정 마리안나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오전 08:35 → 클레어 룸(기존에 주일학교가 사용했던 장소) 안쪽의 1층 컨퍼런스 룸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12:00pm, 클레어 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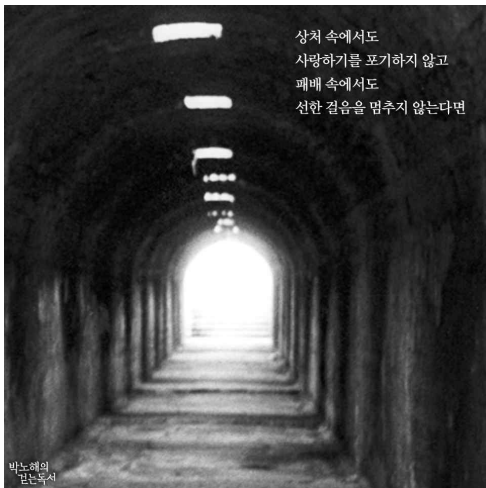
**[복음 묵상] "증언"**

오늘 복음에서는 "증언"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사용된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파견된 사람이라는 의미다. 사람이 하느님을 증언한다는 것, 빛이 아니면서 빛을 증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들 삶에서 가끔씩 그런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기도 한다.

고故 이태석 신부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았다. 남수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신자든 비신자든 간에 모두가 그분에게서 새로운 빛을 보았다. 증언의 삶은 비단 특별한 분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본당 신자들 가운데 80대 어르신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한다. 어려운 사정에도 독거노인을 돕기 위해 밥 봉사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방문하여 도우미가 되어 드린다. 이 또한 증언자들이 아닌가?

여전히 가정마다 냉담하는 식구들 때문에 고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하느님, 교회, 성경을 소개하려 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내가 만난 하느님이 되고, 교회가 되며, 성경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체험에서 오는 증언이야말로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이다.

자선 주일이다. 자선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 보자, 그들에게 '한 송이 꽃'이 되어 보자.



상처 속에서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패배 속에서도 선한 결실을 멈추지 않는다면

박노해의 단편특집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레이저  
리프팅/탄력  
얼굴윤곽시술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Clear Laser CITY CLINIC**  
501 5TH AVE. #2011, NY, NY  
212.697.1802  
@ ID: clearlascity



뉴욕 맨하탄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님)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SE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58 WINE & WEST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SUN: 12PM-9PM)

**인쇄·책 출판**  
당일 인쇄 가능

EDDM Mailing Services/Yelp. Email Marketing

**Acex**  
212.971.0212 / 268.2776  
208 W. 29TH ST. #203 NY, NY 10001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김승범 분도 치과

2 WEST 46TH STREET SUITE 501 NY  
212-779-3368  
1585 PALISADE AVE FORT LEE  
201-585-0404

맨하탄 미드타운 통증병원

==== **The Wellness Room** ====

물리치료사 : 김 미카엘  
카이로프랙터/한의사 : 김소피아  
212-302-2692

광고주를 찾습니다.



[레지오 회합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구세주의 모후pr	주일 08:00am	Conf. Rm(2F)
바다의 별pr	주일 08:00am	교육관 3
은총의 샘pr	수 03:00pm	Korean Conf. Rm(2F)
평화의 모후pr	수 07:30pm	Korean Conf. Rm(2F)
우리 즐거움의 원천pr	화 07:00pm	Korean Conf. Rm(2F)
신비로운 장미pr	월 07:00pm	Korean Conf. Rm(2F)
사랑의 샘pr	주일 01:00pm	Conf. Rm(2F)
희망의 모후pr	목 07:00pm	Korean Conf. Rm(2F)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15 am(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미사(영어) :

월-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nyc.org> "9:15 Korean Mass"

[지켜야 할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평화의 인사 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손님 신부님 미사 일정

새 신부님은 비자 승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입니다. 오시는 동안 손님 신부님께서 주일미사를 집전하실 예정입니다.

12.13 : 김학범 알풍소신부(메리놀회)

12.20 : 조홍래 베드로신부(뉴약대교구)

대림 판공 성사 안내

- 일시 : 대림시기 매주일 08:35시 부터
- 장소 : 클레어 룸(기존에 주일학교가 사용했던 장소) 안쪽의 1층 컨퍼런스 룸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분~~

지난 수요일(12.9) 도착하신 김진열 가롤로 신부님과 박순호 티모테아 수녀님이 2주간의 격리 중에 계십니다. 12.23(수) 격리 해제가 되어 주님성탄대축일 미사부터 공동체와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성탄맞이(11.29-12.24)~마니또, 수호1004

- 마니또 발표 및 선물 전달 :  
12.20일이나 25일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개별적인 만남

2021 달력배부를 곧 시작합니다!!

2021 주보 광고(신청비 : \$200)

주보에 사업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미사 전·후 뒷성당 입구 재무 데스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탄 대축일 꽃 봉헌

꽃 봉헌을 받습니다.  
봉헌금은 미국 본당에서 준비하는 성탄전례 꽃꽂이에 사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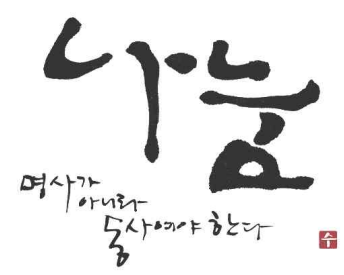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http://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내어 주면  
또  
하나가 남는 것이  
주님의 선행임을

가난한 마음이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글 | 이순구(베네딕도)



“구두장이 마틴”

어느 작은 마을에 마틴이라는 구두장이 살았습니다. 마틴은 창문이 하나 있는 지하 방에 살았는데 그 창문으로만 거리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틴은 신발만 보아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의 신발은 거의 다 마틴이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에 구두장이 마틴은 일을 했습니다. 저녁이면 마틴은 뜨겁게 차를 끓이고 책꽂이에서 성경책을 꺼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등잔 불빛 속에서 성경책을 읽다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도 마틴은 커다란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마틴은 예수님을 초대한 부자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야기를 읽고 난 마틴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나는 잘 대접할 수 있을까?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할까?' 마틴은 등불을 끄고 머리를 두 손에 파묻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틴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틴!"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려 왔습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 깰었습니다. 하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르는 소리가 아주 똑똑하게 들렸습니다. "마틴! 마틴! 아침에 거리를 살펴봐거라. 내 너에게 갈 것이다." 마틴은 일어나 눈을 부본습니다. 마틴은 이 소리를 정말로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꿈을 꾸는 것일까요? 마틴은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틴은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틴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틴은 난로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물주 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물이 끓자, 마틴은 차를 타고 빵을 잘랐습니다. 마틴은 '어젯밤 일이 꿈이었을까?' 생각하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조금 뒤에 마틴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막 가족을 한 조각 잘라 내는데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틴은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늙은 청소부 슈테판이 발을 동동 구르며 시린 손을 호호 불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열린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들어와요, 슈테판! 우리 집에서 몸 좀 녹이세요!" 슈테판은 안으로 들어와 따뜻한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날씨가 춥군, 얼음장같이," 슈테판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슈테판은 마틴이 내놓은 뜨거운 차를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셨습니다. 슈테판은 몸이 따뜻해지자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마틴은 차를 한 잔 더 마시고 난로 위에 양배추 수프를 올려놓았습니다.

마틴이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어떤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얇은 자기 옷으로 아기를 감싸 찬 바람을 막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여인에게 들어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마틴은 여인에게 수프를 주고 자기의 낡은 외투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외투는 크기가 넉넉해서 여인과 아기를 충분히 감쌀 수 있었습니다. 또 마틴은 여인에게 돈을 주면서 아기에게 우유를 사 주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허리를 굽혀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여인은 두툼하고 따뜻한 외투로 자기와 아기의 몸을 감싸고 떠났습니다. 여인이 떠나고 난 후, 마틴은 남은 수프를 마저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마틴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그림자가 창문에 비치기에 마틴은 열린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가 지나간 것일까?' 아는 사람도 지나갔고 모르는 사람도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게 할머니가 사과를 훔친 소년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몹시 아파했습니다. 그때, 마틴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애를 놔 주세요, 할머니! 사과 하나 훔쳤다고 그렇게 심하게 벌을 준다면 우리가 지은 죄는 대체 얼마나 큰 벌을 받아야 하죠?" 소년과 할머니는 처음에는 마틴을 바라보더니 나중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소년은 나직한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소년이 바구니를 들고 할머니와 함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마틴은 또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끝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곧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마틴은 등불을 켜고 장화를 마저 다 꿰맸습니다. 일이 끝나자 마틴은 연장을 정리하고 가족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마틴은 벽에서 등잔을 내려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틴은 어제저녁 열심히 읽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누군가가 다가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뒤쪽 어두운 구석에 정말로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지는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마틴! 날 모르겠던가?" "누구세요?" 마틴이 물었습니다. "나였네." 하면서 어두운 구석에서 슈테판이 빙그레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역시 나였네." 하더니 아기를 안은 여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여인은 살며시 웃고 있었습니다. 아기도 방글방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나였네." 하더니 가게 할머니와 사과를 든 소년이 이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두 사람도 빙그레 웃고 있었습니다. 마틴은 깜짝 놀라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틴의 눈앞에서 안개 속으로 조금씩 모습을 감추더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구두장이 마틴은 자기 꿈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정말로 마틴에게 오셨고 마틴은 예수님을 맞이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두장의 영혼은 아주 맑아졌습니다. 마틴은 어젯밤에 읽다가 만 바로 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쪽 맨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밤 9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모경을 바치는 시간입니다.”

본당 게시판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5)

-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 전마지(마가렛) 이재호(클레멘트)
- 전마사자(카타리나) 김동희(헬레나)
- 이중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 홍봉운(바오로)